



차이나

CHINA Industrial Policy Brief

산업정책 브리프



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

전화 : 86-10-6505-2671/3

이메일 : beijingk@kita.net

1 中 시진핑 주석, 브릭스 포럼 폐막식 연설

- 8월 22일,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브릭스(BRICS·브라질·러시아·인도·중국·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경제 5개국) 비즈니스 포럼 폐막식에서 ‘공동 발전과 번영 촉진’을 주제로 연설함
- 시진핑 주석은 폐막식에서 모든 국민이 추구하는 것은 신(新)냉전이나 소집단이 아니라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공동번영을 이루는 세계라며 모든 국가는 발전할 권리가 있다고 언급함
- 또한, 브릭스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고 ‘브릭스+’ 모델을 확장하며, 신흥국가 및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브릭스 가입을 원하는 20여 개국(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 중동 국가, 알제리 수단 등 아프리카 국가,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국가, 벨로루시 등 유럽 국가)을 환영한다고 밝힘
- 한편, 시주석은 중국은 높은 수준의 개방으로 시장화, 법치화, 국제화된 일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여 세계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을 다짐함

자료원 : 신화사

https://www.gov.cn/yaowen/liebiao/202308/content_6899642.htm

2 中 발개위, <녹색 저탄소 첨단기술 사업 실시방안> 발표

- 8월 16일, 중국 국무원은 탄소중립 추진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<녹색 저탄소 첨단기술 사업 실시방안>(《绿色低碳先进技术示范工程实施方案》)을 발표함
- 동 실시방안은 2025년, 2030년 2단계에 걸쳐 녹색 저탄소 첨단기술 시범사업 목표를 제시했으며, 주요 내용으로 △비화석에너지 첨단기술 시범사업 : 스마트 태양광 모듈, 신형 박막 태양전지, 초박형 실리콘 웨이퍼 등 첨단 태양광 제품 R&D 추진 △에너지저장장치(ESS) 프로젝트 추진 △녹색 수소 및 저탄소 시범사업 : 수소연료전지 R&D 및 제조 △산업분야 시범사업 : 철강 및 비철금속 제련 프로세스 최적화, 저탄소 석유 화학, 재생 에너지 등 관련 프로젝트 추진 △이산화탄소 포집·활용·저장(CCUS) 사업 추진 △스마트교통 시스템 구축 등임

자료원 : 발개위

https://www.ndrc.gov.cn/xwdt/tzgg/202308/t20230822_1359999.html

3 中 발개위, <풍력·태양광 장비 재활용 관련 가이드라인> 발표

- 8월 13일, 국가발개위 및 국가에너지국은 <풍력·태양광 장비 재활용 관련 가이드라인> (《关于促进退役风电、光伏设备循环利用的指导意见》)을 발표함
- 동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 △기업의 녹색 디자인 : 기업이 장비 경량화를 목표로 제품 설계의 녹색 기준을 실시하도록 유도 △폐기물 재활용 및 풍력발전소 개조 및 업그레이드 지원 △선도 기업의 산업화 능력을 추진하고 태양광 모듈 내 반도체 재료, 금속재료 등의 재활용 강화 △풍력발전기·태양광 부품의 재생산 산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풍력·태양광 장비 평가기관 육성 및 산업규범 마련 △국가 환경보호 기준에 따라 고체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감소 등임
- 한편,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2030년까지 풍력·태양광 장비 폐기물이 약 3,5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 폐기물은 산업자원을 함유하고 있어, 1메가와트당 재활용 가능한 철강, 구리, 알루미늄, 유리섬유 등 원료가 100~240톤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

자료원 : 발개위

<https://baijiahao.baidu.com/s?id=1774443472802977009&wfr=spider&for=pc>

<https://baijiahao.baidu.com/s?id=1774536108339656859&wfr=spider&for=pc>

4 中 해관총서, <종합보세구 발전 추진 23개 조치> 발표

- 8월 16일, 국무원은 <종합보세구 발전 추진 23개 조치>(《推动综合保税区高质量发展综合改革实施方案》)를 발표함
- * 종합보세구(综合保税区) : 해관의 특수관리구역으로 외국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보세 제도를 실시함. 2023년 2월 기준 중국은 총 156개의 종합보세구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
- 동 조치의 주요 내용으로 △종합보세구의 검사 및 검역 작업에 대한 절차를 최적화 : △무역 편리화 추진 : 기업 대상 맞춤형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출입 화물의 통관절차를 최적화시키며 현장 조사 및 서면조사 횟수를 감소 △면세점 상품이 종합보세구에서 국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 △기업의 운영 비용을 감축하고 기업 대상 서비스를 강화 △종합보세구 물류 업무에 대한 감독관리를 규범화 △스마트 종합보세구의 구축을 추진하는 것 등임
- 한편,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중국 종합보세구의 수출입 규모는 6조 5,600억 위안(약 1,200조원)으로 중국 전체 수출입 총액의 15.6%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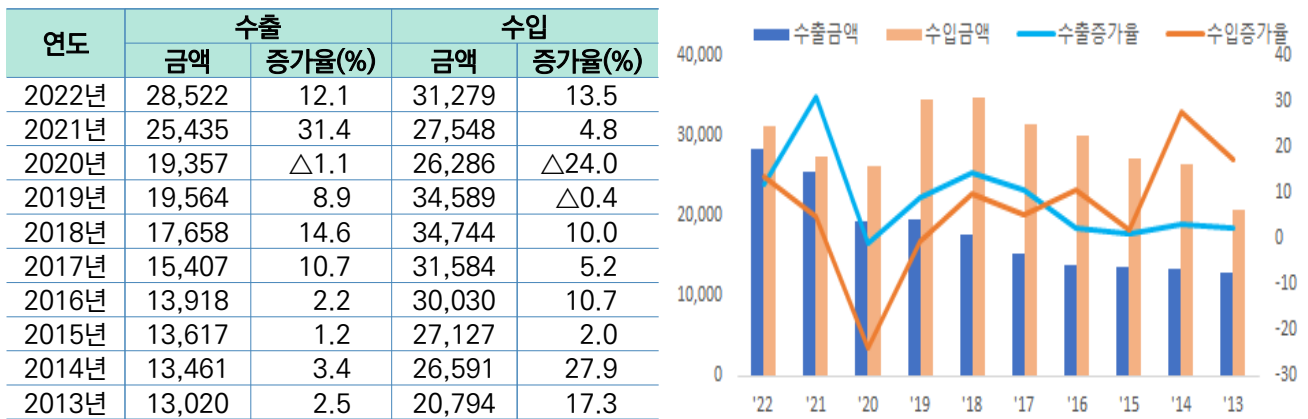
자료원 : CCTV

<https://baijiahao.baidu.com/s?id=1774352053570867276&wfr=spider&for=pc>

5 中 상무부, <국경 간 서비스무역 추진> 발표

- 8월 21일, 상무부 대변인은 금년도 서비스무역교역회는 개방 및 확대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세계 각국과 함께 서비스업 및 서비스무역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발표
- 동 회의에서 상무부 대변인은 향후 중국의 서비스무역 관련 목표를 제시함. 구체적으로 △대외개방 확대 : 자유무역시범구의 국경 간 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를 제정함으로써 국경 간 서비스무역 개방을 추진 △국가 서비스무역 혁신 발전 시범구 구축을 가속화 △서비스무역 발전 관련 정책의 도입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것 등임

중국 서비스무역 수출입 통계 (단위: 억 위안)



자료원 : 상무부, 증권일보

<https://finance.sina.com.cn/tech/roll/2023-08-21/doc-imzhycmx5698221.shtml>

<http://data.mofcom.gov.cn/fwmy/overtheyears.shtml>

6 中 해관총서, <대만산 신선 망고 수입금지> 발표

- 8월 21일, 중국 해관총서는 대만산 신선 망고의 수입금지 조치를 발표
- 해관총서가 밝힌 수입 금지 원인은 대만산 신선 망고에서 유해 물질인 굴가루각지벌레(Planococcus minor)가 검출되었기 때문
- 한편, 대만 민진당 농업주관 부서 관계자에 따르면, 대만은 주로 일본, 한국, 홍콩, 중국 등 지역으로 망고를 수출하고 있으며 올해 7월 기준 對중국 누계 수출량은 총 938만 톤에 달한 것으로 집계됨

자료원 : 해관총서

https://mp.weixin.qq.com/s/6PsNedPP_PnfjZrmDVZz8Q

<https://baijiahao.baidu.com/s?id=1775002992318519038&wfr=spider&for=pc>